

2) 2월

(1) 2월 초하룻날(하리아드렛날)

하래드는 날, 하래드디날, 하루달, 하루아릿날, 하렛날, 하드리날, 허드래, 하래드리, 하려드릿날, 하래드래, 하드리, 하려드레, 하루드렛날, 하루데, 영등날, 영등할매날, 대올리는 날이라고도 한다.

정월 보름 벗가릿대(유지지대)에 매어두었던 벼 이삭을 훑어 그것으로 송편을 만들고 종들에게 나이수대로 나눠 먹였다. 이 때문에 이날을 노비일이라고도 하였으며 떡을 나눠 먹고 폭 쉰 뒤 이튿날부터 농사일을 시작한다. 또한 콩을 볶아 먹거나 찹을 캐 먹기도 하며, 떡과 볶은 콩 그리고 명주실을 함께 지붕 위에 던진다. 콩을 볶을 때 ‘죵 볶자’, ‘굶벥이 볶자’ 또는 ‘손 꼬스럼(그을음) 볶으자’, ‘빈대·벼룩 죽어라’, ‘빈대·벼룩 볶으자’, ‘사내기 지지자’ 등 소리를 낸다. 밭에 해삼풀이 무성해서 농사에 피해가 많으면 다섯 가지 곡식(콩, 팥, 수수, 참깨, 보리)을 밭 가운데서 솔단지를 걸어놓고 ‘밭 가운데 해삼 볶으세’ 하며 볶아 밭에 던지면서 먹는다. 2월에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지 않고 초분(빙수, 초빈)을 했다.